



추신수의 '특급 선행'

“이젠 돌려줄 때”...마이너 선수 191명에 123만원씩 지원 ‘화제’

“코로나19 심각성 인식해야” 미국 국민들에게 쓴소리도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힘든 환경에서 운동하는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위해 대구모 금전 지원에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AP통신은 2일(한국시간) 추신수가 소속팀인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선수 191명 전원에 1000달러(약 123만원)의 생계 자금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총액이 19만1000달러(약 2억3500만원)로 적지 않은 돈이다.

앞서 추신수는 지난달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대구 시민들을 도

우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원을 기탁했다.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가 중단되고 정규시즌 개막도 연기되면서 자택에 머무는 추신수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나도 마이너리그에서 7년 동안 뛰었는데 금전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라며 “지금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당시보다 환경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금전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며 지원 배경을 밝혔다.

추신수는 지난달 중순 스프링캠프가 중단된 직후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돕는 방안을 놓고 아내와 상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는 시즌이 중단되면서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최대 주급 400달러(약 50

만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대다수 선수가 생계를 위협받아 다른 부업을 찾고 있다.

텍사스와 1억3000만달러에 7년 계약을 맺은 추신수는 마지막 해인 올 시즌 팀 내 최고액인 2100만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추신수는 “20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야구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리게 됐다”면서 “그래서 이제는 돌려줄 때다.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을 돕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신수는 코로나19 확산사태에 직면한 미국 국민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지역 일간지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는 건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바깥을 돌아다닌다”고 지적했다.

추신수는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원 등에서 노니는 것을 거론한 뒤 “우리가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면 모든 이들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며 대중의 모임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을 따라줄 것을 호소했다.

추신수는 기자에게 “한국의 상황이 왜 괜찮은지 아느냐”고 묻는 뒤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심각성을 인식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한국의 집에서 한 달째 집에 머무는 자신의 부모 상황도 곁들였다. /연합뉴스

웬블던 테니스 2차대전 이후 첫 취소

긴급 이사회서 올해 대회 열지 않기로

6월 말 개막 예정이었던 웬블던 테니스 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국 취소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웬블던을 개최하는 올잉글랜드 테니스클럽(AELTC)은 긴급 이사회 개최 결과 올해 웬블던 대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최 측은 “올잉글랜드 테니스클럽 이사회와 챔피언십 운영위원회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 우려에 따라 2020년 대회를 취소하기로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34회 대회는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11일에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웬블던 테니스 대회는 당초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런던 웬블던의 올잉글랜드 테니스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주최 측은 그동안 다른 스포츠 대회 중단 및 연기, 도쿄올림픽 연기에도 불구하고 취소 결정을 미뤘었다.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프랑스오픈 테니스대

회는 이미 개최 시기를 5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잔디코트에서 열리는 웬블던의 경우 여름철 외에는 개최가 어렵다는 점이 취소 결정을 미뤄온 요인이 됐다.

주요 경기가 열리는 센터 코트와 남버뮤 코트의 경우 지붕이 있지만 다른 코트의 경우 지붕 자체가 없다. 늦여름이나 가을에는 햇빛이 부족, 오후 늦은 시간에는 잔디 표면이 이슬 등이 맺히기 때문에 메이저 대회 수준의 코트 상태를 갖추기 어렵다.

대회 일정을 축소하거나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는 방안은 선수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웬블던 테니스 대회가 연기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1877년 창설된 웬블던 테니스대회는 세계 1, 2차 대전의 영향으로 1915년부터 1918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두 차례 기간에 열리지 않은 바 있다.

올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1월 호주오픈은 정상적으로 끝났으나, 웬블던에 이어 8~9월 예정된 US오픈과 프랑스오픈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살개 선수들 훈련도 거리두기 독일 켈젠카르헨 훈련장에서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클럽의 살개 선수 몇몇만이 서로 거리를 유지하며 훈련을 하고 있다. 독일축구리그(DFL)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이번 달까지 모든 경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럽골프투어 뛰는 힘, 미국서 미니투어 우승

우승상금 순수입은 3625달러

‘길거리 농구에 미국프로농구(NBA) 선수가 뛰는 격’

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버크하이의 베라도 골프 클럽에서 끝난 미국 골프 아웃로 투어 베라도 파운더스컵 챔피언십 우승컵은 유럽프로골프투어에서 뛰는 켈릭 힘(스코틀랜드)에 돌아갔다.

힘은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진 이 대회에서 15언더파를 때려 우승 상금 4500 달러를 손에 넣었다. 참가비 875달러를 뺀 순수입은 3625 달러.

아웃로 투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커녕 2부 투어에서도 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수들의 무대다.

출전 선수가 낸 참가비로 대회 경비와 상금을 충당하기에 상금 규모는 PGA투어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힘은 올해 유럽프로골프투어에 데뷔한 신인이지만 작년 유럽프로골프투어 2부인 챌린지 투어에서 상금랭킹 2위를 차지했고 현재 세계랭킹 136위에 올라 있다.

세계랭킹은 작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상금왕 이수민(27)이나 PGA투어에서 활동한 이경훈(29)보다 높다.

미니투어인 아웃로 투어 대회에 나올만한 선수가 아니다. 아웃로 투어에서 바리그 1부 투어로 치는 PGA투어나 유럽프로골프투어 선수가 출전한 건 힘이 처음이다.

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럽프로골프투어가 중단되자 여자 친구가 사는 애리조나에 왔다가 아웃로 투어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연습 삼아 출전했다.

미국 출입국 당국이 유럽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막기 전에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힘에 2타 뒤진 준우승을 차지한 크리스 코르테(미국)도 PGA 2부 투어 격인 라틴아메리카투어에서 뛰고 있다.

세계 각국 주요 프로골프투어가 코로나19 때문에 대회를 열지 못하면서 바리그 선수들이 미니투어에 출전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자 골프 미니투어인 캐터스 투어에서는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등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급 선수가 참가해 우승컵을 가져갔다. /연합뉴스

박인비의 '방구석 챌린지'...반려견 리오와 함께 '굿 샷'

유튜브 채널 통해 영상 공개 다양한 도전 통해 기부활동도

‘골프 여제’ 박인비(32)가 새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 안에서 시도한 재미있는 샷 영상을 공개했다.

박인비의 매니지먼트 회사 브라보앤유와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CXC 골프는 최근 “박인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인비 인비리버블’을 개설하고 그동안 필드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박인비만의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을 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동영상에서 박인비는 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골프공을 웨지로 쳐서 작은 물컵에 집어넣고, 반려견인 ‘리오’ 앞에서 시도한 샷을 ‘리오’가 그대로 입으로 받아내는 장면 등을 소개했다.



반려견 앞에서 샷을 시도하는 박인비. <박인비 인비리버블 채널 동영상 캡처>

또 125야드 거리에서 125차례 샷을 날려 홀인원에 도전하기도 했으나 125차례의 샷 가운데 홀인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박인비는 “개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도전을 계획

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통한 기부 활동으로 많은 골프 팬은 물론 골프가 생소한 분들과도 더 친근하고 유쾌하게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인비는 이날 ‘방구석 챌린지’라고 제목을 붙인 이 영상에서 ‘스테이 앳 홈’(Stay at home)이라고 쓴 문구를 들어 보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생활 수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인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의료계 종사자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의미를 담아 ‘스테이 앳 홈’ 동영상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인버저블맨
3관	1917, 더 터닝, 월드 워 Z
4관	n번째 이별중 스캐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5관	사랑하고 있습니까
9관	주디, 스캐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7관	씨네캐슬 1917, 더 터닝, 다크 워터스 미드나잇 인 파리
8관	씨네캐슬 정직한 후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즐거움
문화산책

스캐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